「OECD 지속가능 중기금융 플랫폼」 웹세미나 주요내용

중소기업 지속가능성 데이터 수요-공급 불균형 완화 노력

작성자 : 김범준 차장(everydayisfriday@ibk.co.kr / 02-729-6213)

OECD는 '중기 지속가능성 데이터 수요-공급 불균형 완화 노력'을 주제로 웹세미나를 개최, 참여기관들의 추진방향을 정리·공유드림

① 일시: '23.2.20(월), 21:00~22:30 (한국시간, Zoom 회의)

② 참여기관: IFRS(국제회계기준재단), 유럽 은행연합회, 프랑스공공투자은행

■ (배경)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데이터에 대한 은행의 수요는 증가세, 그러나 중소기업의 데이터 인프라 미비로 데이터 수급 불균형이 우려

- 은행경영 전반에 ESG 내재화 요구 증대, 지속가능성 공시규제 강화*로 중소기업 고객의 지속가능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

  * EU 집행위가 '22년말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(CSRD)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이르면 '24년부터 유럽 內 상장 대기업을 시작으로 ESG 공시의무 대상이 확대될 예정

  - 은행권 탄소중립의 핵심인 금융배출(financed emission)* 측정·관리 고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확보가 중요

  * 금융기관의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, 즉 투자·대출 지원으로 인해 금융고객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

-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은 현재 관련 가이드라인 부재, 전문인력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

■ (IFRS)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시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과도한 부담전가를 방지하는 장치 마련 중

- **(지속가능성 공시기준)** IFRS가 발표 예정*인 지속가능성 재무정보 공시의 글로벌 기준으로, 일반 요구사항(S1)과 기후관련 공시(S2)로 구성

  * '23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발표하고 '24년 본격 시행될 예정, 관련 주요내용 ⇒[참고]

- **(중소기업)** 최종안에는 중기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포함될 예정

  - 필수 정보공시의 범위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, 지속가능성 공시가 기존 회계원칙과 최대한 부합하도록 설계하여 혼선을 방지

■ **(유럽 은행연합회) 지속가능성 데이터 측정·공시와 관련한 중소기업 및 은행의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솔루션을 모색**

- **(표준양식 제안*)** 연합회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ESG 공시용 표준양식 제안을 통해 중소기업 공시부담을 완화 * '23년 中 시행 예정
  - 현재는 각 기관이 요구하는 ESG 데이터의 범위 및 질문형식이 상이해 중소기업의 대응부담이 큰 상황

- **(DB 구축*)** 통계청 등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ESG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데이터 중앙화를 시도하여 은행의 정보탐색 비용 절감 * 논의 단계
  - 은행이 중소기업 관련 ESG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적·물적 자원이 소요되어 비효율성 초래

■ **(프랑스공공투자은행)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금융배출량을 간접적으로 추정·산출하여 은행 경영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**

- **(산출방법)** (추정)온실가스 금융 배출량 = (추정)기업 배출량* × 금융기여도**

  Financed emissions = Emissions × Attribution factor

  * 대부분 중소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·공시할 수 없어 기업 매출액과 해당 산업의 탄소집약도 통계를 활용하여 배출량을 추정 ** 기업의 총자산 대비 은행투자 비율

  ※ IBK를 포함한 주요 국내은행들도 국제표준방법론(PCAF) 준용해 동일 산식으로 산출

- **(활용)** 금융배출 분석*을 토대로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, 경영전반에 반영

  * 주요 고객군 온실가스 배출현황, 주요 온실가스 배출 고객현황, 연도별 금융배출량 추이 등

  - 현재 금융배출 분석결과를 기업 신용평가 모형에 반영하고, 전행 기후리스크 관리, 탄소배출 예측모형 고도화 등에 활용 중

■ **(시사점) 중기 지속가능성 데이터 불균형 완화를 위한 각 기관의 산발적 노력을 통합·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**

- 다양한 시도가 중소기업 공시 확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중복을 최소화하고 기존제도와 조화를 모색하는 접근이 요구됨

- 동시에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고도화 노력을 통해 데이터 부족 현상을 극복하여, 데이터 기반 녹색금융을 강화할 필요

참 고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주요 내용

■ **IFRS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글로벌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기준에 대한 공시기준 초안 발표**

- **(일반 요구사항, S1)**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기준
  - (목적) 투자자 의사결정 시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시
  - (핵심요소)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4 핵심요소*에 입각하여 공시

  * 지배구조, 전략, 위험관리, 지표 및 목표
  - (보고대상 기업 및 빈도) 재무제표와 동일
- **(기후관련 공시, S2)** IFRS가 지속가능성 관련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'기후' 관련 공시기준
  - (목적) 투자자 의사결정 시 중요한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시
  - (적용범위) 기업이 노출된 기후관련 위험* 및 기회

  *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과 녹색전환과 관련된 위험 등
- **(특징)** 同 기준의 채택여부는 각국 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예정
  - 다만, 同 기준에 대해 금융안정위원회(FSB)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
  - 同 기준은 IFRS가 각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('23.상) 발표 후, '24년 초 본격시행 예정

IFRS S1 및 S2 주요 공시대상

구 분	기 준	주요 공시항목
지배구조	S1	-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·기회를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의 명칭, 권한
	S2	- 기후 관련 위험·기회를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의 명칭, 권한
전략	S1	-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·기회 관련 전략
	S2	- 미래 현금흐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험
리스크관리	S1	-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관리가 전체 리스크관리에 통합된 정도
	S2	- 기후위기 관련 위기·기회 식별방법
지표·목표	S1	-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지표
	S2	-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집약도 관련한 핵심목표 등

자료 : 금융위원회 보도자료('22.5.12)